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26 / 2008.7.11

□ '08년 LNG 프로젝트 감소 추세

- Shell, Chevron 등 메이저들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을 주저하고 있어 '08년 내에 세계적으로 신규 LNG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 '08년 나이지리아와 알제리, 호주 등지에서 연간 9,500만 톤 규모의 LNG 생산 프로젝트가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으나 최종 투자결정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알제리의 Gassi Touil 프로젝트, Chevron 주도의 호주 Gorgon 프로젝트, 적도기니의 LNG 시설 확충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최종 투자결정이 승인되지 않을 전망이다.
- '08년에는 나이지리아 LNG 프로젝트 중 제7트레인 건설만이 유일하게 승인된 바 있음.
- LNG 투자결정 지연의 주요 원인은 가스 생산국 정부와의 재협상, 개발비용 증가, 협력기업간 분쟁 등임.
- 세계 LNG 수요가 '15년까지 연간 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신규 LNG 프로젝트 투자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LNG 시장은 '15년까지 타이트할 전망이다.

(Bloomberg, 2008.7.9)

NEWS

- '08년 LNG 프로젝트 감소 추세
- Petrobras, 원유생산 점진적 확대 예정
- Petrobras, 베네수엘라 원유 개발 사업 참여
- 안데스-중미 에너지회담(ACA) 개최
- Petrobras, 시탕수수 활용 전력 생산 예정
- Shell, 멕시코만 유전 회수를 증진 사업 개시
- 이라크, 6월 원유수출량 감소
- Shell, 카타르 천연가스액화사업 50% 달성
- 나이지리아, 인도 기업들의 유전개발 라이선스 철회
- Abu Dhabi 국영기업, 북해 자산 매입
- Repsol, Sakhalin-3 프로젝트 참여 논의
- Eni, 러시아 가스 하류부문 진출
- Gazprom, 리비아 석유, 가스 및 LNG 전량 수입 희망
-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입 증대
- British Gas, 가스 가격 15% 인상 예정
- EU, 어업부문에 €6억 지원
- 프랑스의 에너지관련 시장규모 확대
- 알제리, 외국기업에 석유제품 시장 개방
- 알제리와 모로코, 에너지 협력 계약 체결
- StatoilHydro, 바렌츠해에서 가스 발견
- GM, 세계 최대 지붕용 태양광집전판 설치

ANALYSIS

- '07년 중남미 에너지기업 실적분석 및 향후 전망
- 이라크 6개 대형유전 공개입찰 현황 및 전망
- EU, 에너지·기후 패키지 논의
- 호주 퀸즈랜드주, 석탄 수출 기반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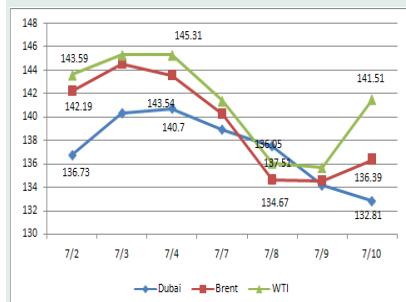
SPECIAL FEATURE

- 주요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 차량엔진 외 부문 효율개선 잠재력 및 정책 제안

REPORT

-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 전망 보고서

Oil Prices (Spot)





ASIA, AMERICA & MIDDLE EAST

□ Petrobras, 원유생산 점진적 확대 예정

- Petrobras는 오는 '15년까지 국내 원유생산량을 280만b/d로 증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 같은 목표량은 최근 발견된 거대 Tupi 유전의 생산량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 Petrobras는 '08년 국내에서 195만b/d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스위스 Credit Suisse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Petrobras가 운영 중인 P-52, P-54 등의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는 충분한 양의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동 보고서는 '08년 Petrobras의 국내 원유생산량이 '07년 대비 25만b/d 증가한 189만b/d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함.
- Santos 灣 일대의 Tupi 유전 개발을 통한 원유생산량 확대에는 향후 수 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Petrobras의 조제 세르지오 가브리엘리 회장은 최근 국내 유전을 개방한 이라크 석유 개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 약 30여년 전 Petrobras는 이라크에서 세계 3위 규모의 거대 유전을 발견한 바 있으나, 생산 단계에 이르지 못한 바 있음.

(BNamericas, 2008.7.5)

□ Petrobras, 베네수엘라 원유 개발 사업 참여

- Petrobras가 베네수엘라의 Carabobo 광구의 탐사·개발권 분양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 Petrobras의 동 프로젝트 참여 지분은 약 4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Petrobras는 베네수엘라의 Carabobo 광구 개발에 약 10%의 지분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참여 수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편 PDVSA는 베네수엘라 국내법상 석유개발 관련 프로젝트 지분의 60% 이상을 확보해야 함.

(Reuters, 2008.7.7)

□ 안데스-중미 에너지회담(ACA) 개최

- 7월 9일, 콜롬비아 Bogotá에서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 통합을 위한 안데스-중미 에너지회담이 개최됨.
- 이번 회담은 '지역 에너지 및 시장 통합을 위한 비전'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에너지 통합과 그에 따른 자금조달, 투자위험 등이 논의될 예정임.
- 동 회담에는 각국 정부 및 기업 대표들을 비롯해 까를로스 플로레스 라틴아메리카 에너지기구(OLADE) 사무총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함.
- 중남미 국가들의 에너지 부문 통합 노력은 지난 '07년 4월 개최된 제1차 남미에너지정상회의 이후 본격화 되었으며, 최근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출범으로 이 같은 계획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 한편 플로레스 OLADE 사무총장은 동 회담에서 중남미 지역의 저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율에 우려를 나타냄.
- 그는 중남미의 수력발전 잠재량이 1,940억 석유환산배럴(BOE)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개발 비율은 21%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면서,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에너지원 구성의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힘.

(EFE, 2008.7.8)

□ Petrobras, 사탕수수 활용 전력 생산 예정

- Petrobras는 오는 '12년부터 사탕수수 찌꺼기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Petrobras의 한 고위 관계자는 브라질 Goiás에 위치한 60MW규모의 Britaruma 발전소에서 오는 '12년부터 사탕수수를 활용한 전력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동 발전소의 초기 전력 생산량은 소규모로 예상되나,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
- 한편 Petrobras는 사탕수수를 활용한 전력 생산 이외에도 천연가스, 소수력 발전 등에 \$20억을 투자해 오는 '12년까지 자사의 전력생산 설비 규모를 1,774MW 확대할 예정임.

(Télam, 2008.7.9)

□ Shell, 멕시코만 유전 회수율 증진 사업 개시

- Royal Dutch Shell은 원유를 하루 최대 3만 배럴까지 증산하기 위하여 멕시코만의 해상유전에 물을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Shell은 2차 채유를 위하여 향후 30년간 여과처리한 해수를 매장지에 주입함으로써 Ursa-Princess 유전의 사용기간을 10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Shell은 상부주입시스템이 2개의 플로우라인을 통해 해상유전 3곳과 기존 유정 2곳 및 Ursa 플랫폼 북동쪽의 新부지까지 양수한다고 밝힘.
- 미시시피강 유역으로부터 160km 떨어진 Ursa 지역에서는 '99년 원유 채굴이 시작된 이후 4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생산됨.

(Forbes, 2008.7.7)

□ 이라크, 6월 원유수출량 감소

- 이라크의 원유 수출량이 5월 대비 30만b/d 감소한 170만b/d를 기록함.
- 남부 바스라 원유 터미널의 수출량은 기상악화로 인해 지난 5월의 157만b/d에서 132만b/d로 25만b/d 감소함.
- 또한,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북부 키르쿠크의 수출량 역시 감소함.



이라크 원유 수출 현황

('000 b/d)	N. America	Asia	Europe	Total
Jan.'08	976	364	485	1,825
Feb.'08	857	586	443	1,886
Mar.'08	1106	463	416	1,985
Apr.'08	855	605	441	1,901
May '08	809	665	534	2,008
Jun. '08	891	463	343	1,697

(PIW, 2008.7.7)

□ Shell, 카타르 천연가스액화사업 50% 달성

- Royal Dutch Shell은 현재 카타르 천연가스액화사업 Pearl 프로젝트를 50% 진척한 상태이며, '10년 첫 생산을 개시하고 '12년부터 전면 가동 예정임.
- '06년 3/4분기에 시작된 14만b/d 규모의 시설 건설에 현재 25,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된 상태이며, '08년 말에는 35,0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Shell은 지난 '07년, Pearl 프로젝트에 투입될 총 비용을 약 \$120억~\$180억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카타르와 중동 지역의 대규모 유전 개발과 가스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비용 상승 압력으로 총 비용은 \$2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PIW, 2008.7.7)

□ 나이지리아, 인도 기업들의 유전개발 라이선스 철회

- 나이지리아 정부는 '05년, '06년 인도의 Essar 등에 부여했던 OPLs 226에 대한 3건의 유전개발 라이선스를 철회하기로 함.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07년 입찰 당시 인도 기업들의 사전 자격 기준 미달을 이유로 라이선스를 철회할 예정임.
- 한편 이와 관련해 '05년~'07년의 입찰 경쟁에서 대다수의 다국적 석유 기업들은 나이지리아의 빈번한 계약 불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음.
- '07년 5월에 취임한 야르아두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의 석유 기업들에



대한 부패척결을 선언했으며, 현재 석유 광구에 대한 기존 계약을 재검토 하게함.

(Platts, 2008.7.7)

□ Abu Dhabi 국영기업, 북해 자산 매입

- Abu Dhabi 국영 에너지 기업인 Taqa는 Shell 및 ExxonMobil의 자회사인 Esso Exploration and Production이 보유하고 있는 북해 유전의 일부를 매입하기로 함.
 - 해당 유전은 East Shetland 지역 6개의 해상 유전(Tern, Eider, Cormorant North, South Cormorant, Kestrel, Pelican)과 2개의 인근 해저 유전이며, 생산 규모는 4만b/d임.
- Taqa는 이를 통해 세계적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동사는 유럽 시장에서의 기반 마련을 위해 '06년 BP 및 Talisman Energy로부터 \$10억 규모의 북해 석유·가스 자산을 매입한 바 있음.

(Telegraph, 2008.7.8)

EUROPE & AFRICA

□ Repsol, Sakhalin-3 프로젝트 참여 논의

- 스페인 Repsol은 러시아 Sakhalin-3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방안을 기존 개발 기업들과 논의 중임.
 - Sakhalin-3 프로젝트는 Veninsky 광구 개발 프로젝트로, Repsol은 동 광구의 지분 25%에 대한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추측됨.
- Repsol은 볼리비아 및 아르헨티나에서의 생산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라틴아메리카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석유·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고자 함.



- Repsol의 현 원유생산량은 240만b/d로 이는 '05년 330만b/d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음.
- Veninsky 광구는 Okhotsk해에 위치한 5,300km² 규모의 광구로, 매장량은 원유 약 1.7억 톤, 천연가스 2,581억m³로 추정됨.

(Interfax, 2008.7.8)

□ Eni, 러시아 가스 하류부문 진출

- Eni의 자회사 OOO-Eni-Energhia는 러시아 전력 기업 TKG-9과 가스 판매 계약을 체결, '10년까지 3.5억m³의 가스를 판매할 예정임.
- 동 계약을 통해 Eni는 세계 2위의 가스 소비 시장인 러시아의 가스산업 하류부문에 진출한 첫 외국 기업이 되었음.
- Eni는 '08~'11년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러시아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11년까지 9억m³의 가스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Eni와 러시아간 협력 관계는 '50년 초부터 시작되어 상류부문에서의 기술 협력 및 South Stream 건설사업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해 왔음.
- '07년 Eni는 Yukos 자산매각 과정에서 EniNeftgaz컨소시엄을 통해 Lot 2의 자산을 매입, 러시아 상류부문에서의 기반을 다진 바 있음.

(Eni, 2008.7.8)

□ Gazprom, 리비아 석유, 가스 및 LNG 전량 수입 희망

- 러시아는 리비아가 향후 생산하게 될 석유, 가스 및 LNG 중 수출 가능한 전량을 모두 수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리비아 측이 동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러시아의 對유럽 통제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제3위의 산유국으로, 20년 이상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에너지부문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Gazprom은 리비아 국영 석유기업과 정제시설 건설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에 합의하였음.



- 이는 신규 정제시설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포함함.
- 한편 리비아는 리비아-유럽간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러시아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러시아는 동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짐.

(Boomborg, 2008.7.9)

□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입 증대

-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소련 자원국에서 서구 국가, 중국 및 러시아간 가스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08년에 對러시아 가스 수출을 증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유럽과 러시아의 가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러시아는 '07년 가스 가격을 \$100/m³에서 \$150/m³로 인상하는데 합의하였음.
- 이는 對유럽 수출 가격인 \$400/m³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러시아는 추가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 한편 EU는 투르크메니스탄이 '09년부터 연간 300억m³의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확인된 바 없음.
-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연간 가스 생산량은 723억m³로, 국내 소비량 200억m³ 및 러시아로의 수출량 500억m³을 제외하면 EU로 수출할 물량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AFX, 2008.7.6)

□ British Gas, 가스 가격 15% 인상 예정

- 영국 최대 에너지 공급 기업인 British Gas(BG)는 에너지 소매가격을 최소 15% 이상 인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600만명의 소비자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 원유가격 상승 및 북해의 가스 생산 감소에 따라 지난 1년간 가스 도매가격은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BG의 모기업인 Centrica의 에너지 소매부문 이윤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
- ※ '09년 인도분 가스의 선물가격은 £1.13/therm로, 1년 전 50펜스/therm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였음.
- 지난 주 석탄 도매가격도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BG를 비롯한 영국 발전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음.
- E.ON과 EdF, Scottish Power, N-Power, Scottish and Southern Energy도 향후 에너지 공급 가격을 인상할 계획임.
- ※ 영국 전력의 30~35%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산되고 있음.

(Times Online, 2008.7.7)

□ EU, 어업부문에 €6억 지원

-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고유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부문에 최대 €6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프랑스 및 스페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회원국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는 어업부문의 시위에 EU 집행위는 긴급 지원을 결정함.
- 이와 같은 결정에는 프랑스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프랑스 정부는 '02년부터 어선용 연료 가격이 240% 상승하여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어부들을 위하여 EU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에 오랫동안 불만을 표시해 왔음.
- EU의 각 회원국 정부는 3년간 1개 어업회사당 총 €3만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요구를 수렴하여 동 지원금을 €10만으로 상향 조정함.
- 동 지원금은 어업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어업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방침임.
- 또한 EU 집행위는 연료사용 절감 효과가 있는 모터를 어선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EU 집행위의 이와 같은 계획은 각 회원국의 어업부 장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하여 7월 중 논의될 예정임.

(France24, 2008.7.8)

□ 프랑스의 에너지관련 시장규모 확대

- 프랑스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따르면, 프랑스의 '07년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규모는 €334억이었음.
- 이는 '06년 대비 17% 증가한 것이며 에너지절약은 16% 증가한 €240억, 신재생에너지는 21% 증가한 €94억 규모였음.
- ADEME은 시장규모가 '12년까지 연간 21%씩 증가하여 €77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상기 시장은 가정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대중교통, 승용차,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판매를 포함함.
- '07년에는 특히 대중교통 시설 및 인프라 부문의 증가 35%를 비롯하여 바이오연료 및 개인차량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음.
-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목재를 이용한 난방기구 시장의 규모는 €20억, 풍력발전기 및 관련 장비 시장은 €17억, 바이오연료 시장은 €15억이었음.
-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부문 중 가정 부문 수요는 전체 시장의 57%를 차지하였으며, 기업 부문 수요는 27%, 전동차 인프라 확충은 4%를 차지함.
- 대중교통 및 승용차 부문의 수출은 총 시장규모의 12%에 해당하는 €35억이었음.

(AFP, 2008.7.9)

□ 알제리, 외국기업에 석유제품 시장 개방

- 알제리 정부는 7월 8일,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차별 없는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법령을 공포함.
- 알제리의 석유·가스 및 석유제품 시장은 석유공사 Sonatrach의 자회사인 Naftal이 사실상 독점하여 왔음.



- 동 법령은 Naftal 보유 인프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강화를 위한 것임.
- 동 법령으로 프랑스 Total과 영국 BP는 알제리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알제리 정부에 석유·가스 재고 보장 및 가스 판매가격 조정을 요구하였음.
- 상기 2개 기업에 따르면 현재 알제리 시장에 대한 투자효율성은 낮은 편이며, 알제리 석유가스관리청(ARH)은 석유제품의 단일가격 보장을 위하여 석유·가스 가격을 조정할 계획임.

(AFP, 2008.7.8)

□ 알제리와 모로코, 에너지 협력 계약 체결

- 알제리 Sonelgaz와 모로코전력공사(ONE)는 7월 3일, 에너지 협력 계약 2건을 체결함.
- 알제리는 모로코 전력망을 통하여 스페인에 전력을 수출할 계획인데 설비규모는 1,000MW로 예상하며, 알제리와 모로코의 전력망 연계는 '08년 11월에 착공될 예정임.
- 또한 Sonelgaz와 ONE는 전력 부문의 거래계약 조건을 수정하여 비상시 상호 원조하는 데 합의함.
- 상기 2건의 계약은 제8회 마그레브 에너지광물부 장관회의에서 체결됨.
- 마그레브아랍연합(UMA)의 국가들이 에너지 부문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개최되는 동 회의에서는 UMA 국가들간 전력망 연계 강화 필요성 및 에너지부문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전략 실행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또한 태양광발전 개발에 필요한 설비 건설 및 민간원자력 부문의 마그레브 국가간 협력에 관하여 논의됨.

(La Tribune, 2008.7.5)

□ StatoilHydro, 바렌츠해에서 가스 발견

- StatoilHydro ASA는 노르웨이 최북단에서 약 201km 떨어진 바렌츠해를



탐사 시추한 결과 천연가스를 발견했다고 밝힘.

- 시추정은 '07년 9월, 바렌츠해에서 최초로 생산을 시작한 해상 가스전인 StatoilHydro의 Snoehvit 유전에서 북동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함.
- StatoilHydro는 시추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형태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동 광구의 매장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힘.
- 노르웨이는 북해와 노르웨이 해의 유전에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원유 생산량을 상쇄시키기 위해 북극 지방에서 석유를 비롯한 새로운 자원 매장지 탐사를 추진하고 있음.

(Forbes, 2008.7.4)

□ GM, 세계 최대 지붕용 태양광집전판 설치

- 세계 최대 규모의 지붕용 태양광발전소가 스페인에 건설됨.
 - 동 발전소는 12MW 규모로 총 면적 19만m², 경량판넬 85,000개로 구성됨.
 - 연간 1,510만kWh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GM공장 사용전력의 1/3 또는 4,600가구의 평균소비량인 3,300kWh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GM은 지난 8일 유럽 전역의 11개 공장에 대한 태양광집전판 설치 계획을 발표했으며, 총 투자 규모는 €5,000만으로 예상됨.
- 스페인 정부는 풍부한 태양에너지를 상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개인 및 기업이 태양광집전판을 설치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1kWh당 €0.42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Guardian, 2008.7.9)



1. '07년 중남미 에너지기업 실적분석 및 향후 전망

□ 개요

- 지난 6월, 중남미 유력 경제지 Latin Business Chronicle은 '07년 중남미 500대 기업의 영업 실적을 발표함.
- 중남미 500대 기업 가운데 에너지 분야 기업은 98개이며, 상대적 강세를 보임.

□ 세부 내용

- 에너지기업들 가운데 멕시코의 PEMEX, 베네수엘라의 PDVSA, 브라질의 Petrobras가 매출액 1~3위를 차지하며 중남미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PEMEX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045억을 기록하며 중남미 500대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며, PDVSA가 \$962억, Petrobras가 \$877억의 매출을 달성함.
- 다만 PEMEX는 '07년 8월 허리케인 DEAN의 피해에 따른 원유생산 지역 복구비용 증대, 과도한 정부배당금 지급 등으로 순이익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중남미 기업 순위(매출기준)

순위	기업	국가	분야	매출액 (백만\$)	매출액 (증감율,%)
1	PEMEX	멕시코	에너지	104,548	2.9
2	PDVSA	베네수엘라	에너지	96,242	△3
3	Petrobras	브라질	에너지	87,735	21
4	CVRD	브라질	광업	36,562	73
5	Telefonica	스페인	하이테크	29,313	23
6	America Movil	멕시코	하이테크	25,544	32
7	Cemex	멕시코	건축	21,681	14
8	Volkswagen	독일	자동차	20,849	26
9	CFE	멕시코	에너지	20,676	2
0	Wal Mart de Mexico	멕시코	소매	20,610	12



- 중남미는 중동, 아프리카와 함께 주요 석유 순수출 지역으로 세계 석유 생산량의 13.2%를 차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3개국이 중남미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남미 유일의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가 역내 매장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 기업들의 성장은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원유수요 증대 및 '07년 전년 말 대비 46.5%의 증가를 보인 국제유가의 연이은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PDVSA는 '05년~'30년 'Oil Showing Plan'의 일환으로 오는 '12년까지 오리노코 유전 개발과 정제능력 증대에 \$560억을 투자할 예정이며, Petrobras 역시 오는 '12년까지 유전 개발 등에 총 \$1,124억을 투입할 예정임.
- PEMEX의 경우 신규 유전 개발을 위한 투자 부진으로 향후 원유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듯 보이나,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이익 측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중남미 에너지 기업 순위

순위*	순위**	기업	국가	매출액 (백만,\$)	매출액 (증감율,%)	순이익 (백만,\$)	순이익 (증감율,%)
1	1	PEMEX	멕시코	104,500	2.9	△1,677	△140
2	2	PDVSA	베네수엘라	96,242	△3	6,273	15
3	3	Petrobras	브라질	87,735	21	13,138	2
4	9	CFE	멕시코	20,676	2	683	-
5	18	Ipiranga Petr.	브라질	12,928	24	215	42
6	19	Eletrobras	브라질	12,676	38	874	61
7	21	Copec	칠레	12,275	49	1,010	23
8	24	Ultrapar	브라질	11,247	402	103	△22
9	26	Ecopetrol	콜롬비아	11,084	21	2,571	53
10	35	Enersis	칠레	9,408	29	378	△30

(* 에너지 기업 순위, ** 중남미 전체 기업 순위)



□ 시사점

- 원유 수요 및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원유 탐사 및 생산 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PDVSA, Petrobras 등 중남미 에너지 기업의 성장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Latin Business Chronicle, 한국수출입은행, 2008.6.27)

2. 이라크 6개 대형유전 공개입찰 현황 및 전망

□ 개요

-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내 대형 유전 6곳과 가스전 2곳을 외국 기업에 '09년 3월까지 공개 입찰할 예정임.
- 이라크의 유전이 외국 기업에 공식적으로 개방된 것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석유자원을 국유화한 이래 40년 만임.
- 한편 석유생산량을 현재의 250만b/d에서 '12년 450만b/d로 대폭 증대할 계획임.

□ 세부 내용

- 석유부가 공개 입찰 예정인 석유·가스전은 남부 바스라주의 루마일라, 주바이르, 서쿠르나 유전과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주의 키르쿠크와 바이하산, 이라크 남동부의 마이산 등 유전 6곳, 서부 안바르주의 아카스, 북부 디알라주의 만수리야 등 2개 가스전임.
- 마이산 유전에는 바자르간, 아부그라이브, 파카 등 3개 유전이 포함되어 있음.
- 지난 4월 이라크 정부는 6개 유전 개발 사업의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 41개를 선정·발표함.
- 41개 기업은 35개의 다국적 석유 기업과 알제리, 앙골라, 터키,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의 6개 국영 석유회사임.



공개 입찰 예정 이라크 6개 유전 지역



- 후세인 알 샤흐리스타니 석유부 장관은 동 유전에 대해 '09년 6월까지 외국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공개 입찰에서 유전 개발권을 따낸 외국 기업은 바그다드에 지사를 설립해야하며 이라크 현지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 이 업체에 최소한 25%의 지분을 할당해야 함.
 - 또한 동 개발 계약의 형태는 생산물분배방식이 아닌 서비스계약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별도로 1일 산유량을 40만 배럴 더 늘리기 위해 세계 메이저 정유사와 \$5억 규모의 단기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그러나 메이저 기업들이 자문비용을 원유로 분배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

□ 시사점

- 현재의 고유가 상황과 각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및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라크의 유전 개발에 대한 세계 석유 기업들간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 석유이익에 대한 분배 방식을 담고 있는 새 석유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석유 자원의 이익 분배를 둘러싼 국내적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음.

(Energy Economist, 2008.7.1, PIW, 2008.7.7)



3. EU, 에너지 · 기후 패키지 논의

□ 개요

- EU 에너지부 장관들은 7월 4~5일, 프랑스 Saint-Cloud에서 개최된 비공식 회담에서 에너지 및 기후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세부 내용

- 유럽의회 의원 및 민간단체, 산업부문 대표, IEA 사무총장은 EU의 비공식 회담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을 에너지 공공정책의 핵심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데 합의함.
 - EU 집행위원회는 '09년 1/4분기 내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Claude Mandil 전 IEA 사무총장은 에너지안보는 제3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역외 에너지 재고 확보와 함께 역내 시장기능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EU의 지침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 마련 및 협력 메커니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 독일 및 영국, 폴란드는 '08년 6월 6일, 각 회원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한 바 있음.
 - 상기 메커니즘은 2개 회원국이 양국의 목표 사용량을 조합하거나 또는 목표를 달성한 국가가 잉여분을 다른 국가에 양도하는 형식임.
 - EU의 바이오연료 생산 및 수입에 대한 신뢰가능하며 실질적인 기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
- EU 에너지부 장관들은 EU 집행위가 제안한 수송연료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0%는 단순히 바이오연료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함.
 - EU 집행위는 7월 6일, 바이오연료는 수송연료 부문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신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Ferran Tarradellas EU 대변인은 '20년까지 EU의 석유의존도 감소를 위하여 바이오연료 사용은 현실적인 해결책이지만, EU 지침은 원자력을 제외한 재생 가능한 형태의 모든 에너지를 일컫는 것이라고 강조함.
- EU 의회의 환경위원회는 사용목표 비율을 10%에서 8~10%내로 하향 조정하고, 동 조정 목표량의 절반을 바이오연료로 충당할 것을 제안함.

□ 시사점

- EU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회원국간 통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음.
- 수입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하여 다각도로 대체에너지원을 개발 및 사용하는 EU의 에너지 정책은 최근의 고유가와 함께 시사하는 바가 큼.

(La Tribune, 2008.7.6, Enerzine.com, 2008.7.7)

4. 호주 퀸즈랜드州, 석탄 수출 기반시설 확충

□ 개요

- 호주 퀸즈랜드 州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석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석탄 수출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

□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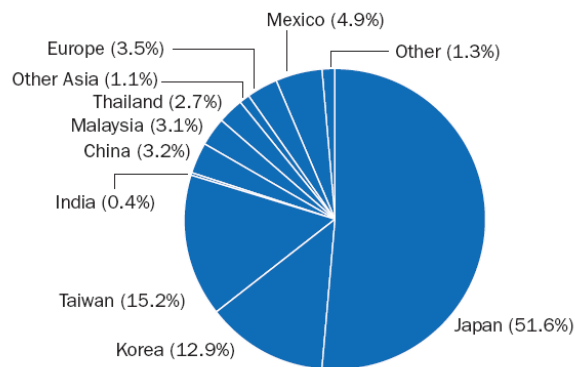
- 아시아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동남아시아에서만 28,545MW급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07년 건설되었으며, 추가로 4,476MW 규모의 발전소건설이 승인됨.
- 동 지역에서 또한 7,837MW 규모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계약이 체결되었고 2,274MW가 가동되기 시작함.

- 중국 및 인도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가 급속하게 증설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지역과 함께 남아시아에서도 신규 건설될 발전소의 대부분은 석탄화력발전임.

'06~'07년도 호주산 발전용탄 국가별 수출현황



Source: Australian Coal Association

- 한편 석탄채광량이 증가하면서 탄광에서 시장까지 석탄을 수송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당면과제로 등장함.
 - 이러한 상황에서 퀸즈랜드 州정부는 새로운 석탄산업 투자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세계 석탄수출 부문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하고 있음.
- 지난 6월, 퀸즈랜드 州정부는 석탄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A\$10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주정부는 항만을 확장하여 '15년까지 석탄수출량을 연간 3억 톤 이상, '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 톤이 공급될 수 있기를 희망함.
 - 또한 '10년 말까지 연간 5,000만 톤이 수송될 수 있도록 퀸즈랜드 북동부 해안의 Abbot Point 석탄항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비용 A\$8.18억 중에서 A\$2.5억을 지원하기로 함.
 - 한편 퀸즈랜드 중부 지역의 석탄수송철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A\$5.8억을 지출할 예정임.



- 호주의 국영철도회사인 Queensland Rail은 동 지역의 철도망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수송차량에 '08~'09년 A\$3억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11년까지 총 A\$20억을 지원할 예정임.

□ 시사점

- 한국은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에너지자원 개발뿐 아니라 항만 및 철도망을 포함한 기간시설 구축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투자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nergy Economist, 2008.7.1)



1. 주요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 개요

-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시장은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07년 약 50만대로 일본이 90% 이상의 판매시장 장악
- 주요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일반차량 가격에 대한 차액 보조 및 세제 감면 등의 보급 지원제도 시행

□ 세부 내용

-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형성
-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규모는 '00년 약 2만대에서 '07년 약 50만대 규모로 급증 추세로, 이중 일본 업체가 약 90% 이상의 판매시장 장악

주요 업체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대수 추이

	2000	2004	2007
토요타	19,011	134,718	428,550
혼다	1,397	30,184	55,423
포드	-	3,051	21,347*
계	20,508	167,953	505,320

(단위: 대)

※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 Hybrid Electric Vehicle)란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얻는 동력(가솔린, 디젤, LPG)과 전기모터의 동력을 혼용 또는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차종으로, 기존 차량대비 1.5배 수준의 연비 실현

- '07년 북미지역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은 약 40만대 규모로, 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시장의 약 80% 점유
- 일본의 '07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대수는 약 9만대로 세계 판매시장의 약 18%를 점유(일본내 약 30만대 보급)



- 유럽은 고연비인 디젤차 비중이 50% 이상의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미미
- 국내에서는 '04년 50대 처음 보급 이후, '07년 까지 1,337대(수입산 425대 제외)가 시범보급 상황. '08년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410대 시범보급을 추진
- 주요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지원제도
 - 주요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촉진 목적으로, 조세감면 혜택 부여 및 일반차량과의 차액 보조금 지급제도 실시중

	주요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지원제도
미국	- 구매회사에 연비에 따른 \$650~\$3,400 차등 지원('06.1~'10.12) - 단, 제작사별 연간 6만대 한도 내
일본	- 친환경차 보급촉진 목적의 기존 차량대비 가격차액 50% 보조 - 자동차세 1년간 50% 경감 + 취득세 2.2% 경감 + 취득가액 30만엔 공제
유럽	- 영국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약 1,000파운드 등록세 감면 - 이탈리아 : 개인등록 차량 1,500유로 보조 - 스웨덴 :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1,400 보조('07.4~'09.12)
한국	- 공공기관 저공해차량 20% 이상 구매 의무화 - 공공기관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당 1,400만원 차액 한시 지원('08)

□ 시사점

-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장 확대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확대 추진 등의 시범보급 확대
- 일반 구매자 대상의 시판에 대비한 조세감면 혜택 부여 및 기존차량과의 차액 보조금 지급제도 도입 필요
 - 단, 일본 업체 등 수입차의 내수시장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제작사별 지원 대수 한도 설정 등의 대비책이 필요



2. 차량엔진 외 부문 효율개선 잠재력 및 정책 제안

□ 개요

- 자동차 연료 소비의 약 30%가 차량엔진 외 부문에 기인함: 타이어 저항(20%), 에어컨 및 라이트 동작(10%) 등
- 적절한 정책 실행으로 엔진 외 부문에서 '30년까지 약 6~8%의 연료 소비 및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됨.

□ 세부 내용

- 타이어 저항으로 인한 연료소비는 '04년 300Mtoe의 연료소비와 800Mt의 CO₂ 배출량 규모이며 이에 관한 정책동향은 다음과 같음.
 - '06년 EU는 성명에서 향후 타이어 저항 측정을 위한 국제적 기준 마련, 타이어 레이블링 시스템, 자발적 및 강제적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정책시행을 천명함.
 - 미국은 운송국의 주도하에 자동차 타이어 저항으로 인한 연료소모에 대한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상 중이며, '03년 캘리포니아 주는 타이어 효율 정보 제공 의무 및 최소 효율 기준을 실행
 - IEA는 '06년 G8 정상회담에서 타이어 저항의 최대치 기준 마련 및 적정압력 유지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함.
 - ISO는 타이어 저항 측정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며 '07년 5월 이와 관련한 시범 절차를 채택함.
- 각국이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는,
 - 국제적인 테스트 및 측정 절차 마련; 레이블링 등의 타이어 저항 정보 유포; 저항의 최대치 기준 설정; 적정 타이어 압력 관련 프로그램 마련 등이 있음.
- 자동차 에어컨으로 인한 연료소비는 '04년 50~100Mtoe의 연료소비와 140~280Mt의 CO₂ 배출량 규모이며 이에 관한 정책동향은 다음과 같음.



- '06년 EU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액션 플랜'에서 자동차용 이동 에어컨(mobile air conditioner, MAC) 최소효율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함.
- 미국의 환경보호국(EPA)은 국제 파트너십 I-MAC을 통해 연료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어컨 기술 개발을 꾀하고 있음.
- 각국이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는,
 - 자동차 효율 측정 절차에 에어컨 효율 측정 절차를 포함시키며 동 정보를 레이블링 등의 형식으로 배포; 최소 효율 기준 마련; 내부온도차 제한 및 섀팅 기술 개발, 캠페인 등 에어컨 작동 감소 유도 등이 있음.
- 자동차 라이트로 인한 연료소비는 '04년 48Mtoe의 연료소비와 130Mt의 CO₂ 배출량 규모임.
- 캐나다는 '89년 주간 운행시 전조등 점등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신차에 대해 에너지절약 장치인 DRL(Daytime Running Lamp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 ※ DRL: 주간 전조등 점등으로 야기되는 연료소모 증가를 줄이기 위한 장치
- 각국이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는,
 - 라이트 연료소모 측정 절차 마련; 최소 효율 기준 마련; 주간 전조등 점등을 의무화하는 국가의 경우 DRL 장착 의무 마련; 관련 정보 배포 등이 있음.

□ 시사점

- 비연소 부문의 연료소비 및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은 '30년 총 자동차 연료소비 중 약 6~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연료저감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동 부문에 대한 연료소비 저감 잠재량 및 정책 연구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 관리, 차량 에어컨 관리 개선 등을 통해 즉각적인 연료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캠페인 등 단기



적 정책 고려 가능

- 또한 타이어 저항, 에어컨 및 라이트 각 부문과 연료소비 관계의 테스트 및 측정, 기준 마련, 홍보 등 중장기적 정책으로 상당한 에너지소비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비연소부문 연료소비 및 CO₂ 배출 저감 잠재량

기 간	타이어	에어컨	라이트
적용 차종	전 차종	승용차	전 차종
'04년 소비(Mtoe)	300	50	48
'30년 잠재 연료소비 감소분(Mtoe)	70~120	38	45
'30년 잠재 CO ₂ 저감량(Mt)	190~320	100	120

원전: "Fuel Efficient Road Vehicle Non-Engine Components: Potential saving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ECD/IEA, October 2007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 전망 보고서

□ 개요

- 미국 에너지부 산하 EIA는 국내외 에너지원별 수급 및 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다룬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서를 7월 8일 발표하였음.

□ 세부 내용

- 세계 석유수급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을 30만 b/d 확대하기로 했음에도 유가하락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이지리아의 공급 감소,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에 따라 향후 공급 차질이 우려됨.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 b/d)

구분	2007	2008	2009
수요(A)	85.54	86.40	87.76
OPEC 공급(B)	35.42	37.10	37.51
비OPEC 공급(C)	49.14	49.38	50.21
공급(B+C)	84.56	86.48	87.72
재고변동**	-0.98	0.08	-0.04

**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난 7년간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원유소비는 증가할 전망이다.
- '08년 상반기 세계 석유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52만b/d 증가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의 석유소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OECD 국가의 소비가 130만b/d 증가한데 따른 것임.
-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인도 및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유류보조금 지급 규모를 감축해야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석유소비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08년 하반기 석유소비는 약 120만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OPEC의 2/4분기 석유 생산량은 3,230만b/d로, 1/4분기 보다 10만b/d 증가함.
 - 이는 이라크 및 앙골라의 생산 증가에 따른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에 힘입어 3/4분기 생산량은 3,270만b/d가 될 전망이다.
 - 비OPEC의 석유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 전망 및 세계 소비 증가를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임.
 - '08년 초 비OPEC의 '08년과 '09년 증산량은 각각 86만b/d, 150만b/d로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각각 23만b/d, 83만b/d로 전망됨.
 - 러시아 및 북해의 원유 생산량이 낮아진데 따른 것이나, '08년 하반기에는 브라질 및 아제르바이잔의 생산량이 약 70만b/d 증가할 전망이다.
- 유가 전망
- 국제 평균유가는(WTI 기준) '08년과 '09년에 각각 \$127/bbl, \$133/bbl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07년 휘발유 가격은 평균 \$2.81/gallon이었으나, '08년과 '09년에 각각 \$3.84/gallon, \$4.06/gallon으로 예상됨.
 - 경유가격 역시 개도국의 수요 증가로 '07년 \$2.88/gallon에서 '08년 \$4.35/gallon로 상승할 것임.
- 미국 석유수급 전망
- 고유가 및 경제성장 둔화세 등으로 '08년 미국의 석유소비는 전년 대비 40만b/d 감소한 2,029만b/d, '09년에는 2,033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08년 석유생산량은 514만b/d로 예측되며, '09년에는 Thunder Horse 및 Tahiti 플랫폼에서의 생산 개시로 527만b/d가 생산될 전망이다.
 - 에탄올 생산량은 '07년 42만b/d였으며, '08년과 '09년에 각각 56만b/d, 64만 b/d로 증가할 것임.
- 천연가스 수급 전망



- EIA는 '08년 미국의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18억 2,588만 m^3/d 이 될 것으로 전망함.
- 가정 및 상업 부문의 천연가스 소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발전 부문의 가스 소비는 3.2%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의 소비도 증가 추세를 보여 '08년에 1.6% 증가할 전망이다.
- 미국의 '08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15억 9,169만 m^3/d , '09년에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08년 걸프만에서의 생산량이 1.3% 하락할 것인 반면, Lower-48 지역의 육상 가스전의 생산량이 7.9% 증가할 것임.
- '08년 상반기 LNG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감소하였음.
- '07년 LNG 수입량은 218억 m^3 이었던 반면, '08년에는 약 82억 m^3 가 하락할 전망이다.
- 이는 LNG 가격이 강세인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으로 수출이 집중된데 따른 것이며, 향후 신규 LNG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9년 LNG 수입량은 223.7억 m^3 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천연가스 가격 전망
 - '08년 6월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13.07/Mcf로, 이는 5월에 비해 거의 \$1.42/Mcf 상승한 것임.
 - 육상 유전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고유가 및 LNG 수입량 감소, 재고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08년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11.86/Mcf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전력 수급 전망
 - '08년 하계 기온은 예년 평균 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전력 소비는 '07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임.
- 전력가격 전망
 - 발전연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은 규제국에



전력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기업들은 비용 인상분을 소비자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 '08년 가정용 평균 전력가격은 전년대비 5.2% 상승한 11.2 ¢/kWh, '09년에는 9.8% 인상된 12.3 ¢/kWh로 전망됨.

○ 석탄수급 전망

- '08년 미국의 석탄소비는 약 11억 3,700만 short ton, '09년 11억 4400만 short ton을 기록할 전망이다.
- 전력수요 증가의 둔화세로 발전 부문 석탄소비 증가는 '08년 0.6%에 그칠 것이며, 원자력 및 천연가스, 수력, 풍력 발전의 확대에 '09년 전력 부문의 석탄소비 증가세는 0.4%로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

□ 시사점

- 경제성장 둔화세 및 고유가 등의 원인으로 '08년 미국의 석유소비는 전년 대비 40만b/d 감소한 2,029만b/d이 될 전망이다.
 - 이는 지난 6월 전망치에 비해 30만 b/d가 추가 하락한 수치임.
- 미국의 '08년 상반기 LNG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감소하였음.
 - '07년 LNG 수입량은 218억m³이었던 반면, '08년에는 약 82억m³가 하락한 126m³가 될 전망이다.
- '08년 6월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13.07/Mcf로, 이는 5월에 비해 거의 \$1.42/Mcf 상승한 것임.
 - 육상 유전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고유가 및 LNG 수입량 감소, 재고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발전연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은 규제국에 전력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기업들은 비용 인상분을 소비자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 '08년 가정용 평균 전력가격은 전년대비 5.2% 상승한 11.2 ¢/kWh로 전망됨.

(EIA, 2008.7)